

지리산 자락 24년째 친환경 고사리 재배

●'5월 전남도 임업인' 구례 손영채씨

지역 여건 맞는 재배기술 터득 年 3천kg 생산
맛·품질 우수...주변 임업인에 기술 전수 앞장

전남도는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지리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사리를 재배하는 손영채(61) 임업인을 선정했다. 손영채 임업인은 2001년 임업후계자로 등록해 구례군 토지면 일원 3만㎡ 부지에 친환경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3천kg을 생산하고 있다.

2001년 고사리 재배를 시작으로 24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지리산 자락 여건에 맞는 재배 기술을 터득했다. 맛과 품질이 우수한 구례 견고고사리가 전국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11년 구례군 임업후계자협회장, 2013년 산나물산약초생산자협의회장을 역

임하면서 견고고사리 생산 체계 확립을 통해 임업인에게 재배 기술 전수에도 앞장서고 있다. 4-5월 채취하는 고사리는 양치식물로 높이가 1m 정도 자란다. 줄기는 통통하고 아기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 말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삶아서 나물로 먹거나 육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 돼지고기와 함께 장조림으로 만들거나 김치전, 녹두전에 넣어 먹기도 한다. 요즘은 고사리와 궁합이 좋은 파와 마늘을 함께 사용해 파스타로 만들기도 한다. 고사리는 식이섬유와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피부 미용에 좋다. 또 칼륨 성분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준다. 풍부한 식이섬유에 비해 열량이 낮아 쉽게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손영채 임업인은 "지리산 자락에서 24년여 동안 고사리를 재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귀산촌을 준비하는 임업인에게 전수해 정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정 지역에서 자란 고사리를 손수 채취해 햇볕에 직접 말린 정성 담긴 지리산 고사리 생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5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손영채 임업인과 구례군 토지면 일원에서 재배 중인 친환경 고사리.

도농기원 신품종 수곡인기물이
19일까지 서울서 '낭만수곡전'

전남도에서 개발·육성한 수곡이 서울식물원 '봄꽃 향연' 메인 전시관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8일 '자체 개발한 그린아리 등 수곡 4개 품종을 포함한 420점을 오는 19일까지 서울식물원 운영하는 서울식물원 지중해관에서 전시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서울식물원은 2019년부터 매년 '낭만수곡전'을 개최하고 있다. 서울식물원의 대표적인 봄꽃 주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요묘한 색상과 형태의 수곡이 식물원 지중해관과 이스타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특히 '낭만수곡전'에서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품종 수곡만으로 전시돼 전남의 화훼 연구 역량과 성과를 마음껏 뽐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수곡을 전남 대표 화훼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곡 품종 개발에 나서 2018년 '그린아리', '핑크아리', 2019년 '모닝스타', '화이트아리' 등 4개 품종을 개발해 민간업체와 통상실시 체결 등 보급에 힘써 왔다. '모닝스타' 등 4개 품종은 이번 전시회 기간 관람객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내의 산업화와 농가 소득화를 위해 향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우수한 전남 수곡 품종을 국내외에 확대 보급해 화훼농가의 안정적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목포수협은 최근 북항 일원에서 2024년 풍어제 개최와 수산물 판매장 개장 행사를 진행했다.

<목포수협 제공>

목포수협, 만선 기원 풍어제 '성황'

풍어기원고사·뱃고사 등 안전 조업·만선 기원

목포수협은 8일 "최근 북항 일원에서 2024년 풍어제 개최와 수산물 판매장 개장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목포수협의 풍어제는 예로부터 어촌에서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만선을 기원하고, 조업 중 불의의 해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업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전국 최대의 전통문화 축제다. 축제는 해마다 개최되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해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민,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만선의 꿈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한원회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등 3천5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창립 87주년을 맞는 목포수협의 풍어제는 만호동 풍물패의 길놀이

를 시작으로 난타 공연을 마친 후 김청룡 조합장은 유교식 전통예복을 갖추고 축원문을 낭독했으며 국가 무형 문화재인 진도 씻김굿으로 풍어기원고사를 지냈다.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풍어제가 어족자원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기회로 만드는 희망의 자리가 되길 기원하다"며 "목포수협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농협, 가정의달 노사상생 孝사랑 기부

목포 하당노인복지관 쌀 100포 전달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농협노조는 8일 "전남 목포시 하당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쌀(10kg, 100포)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박종탁 전남농협본부장과 차상훈 전남농협노조위원장, 김형근 하당노인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농협전남본부가 후원하고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노사가 상생의 뜻을 모아 관내 독거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물품 중 일부 80포는 복지관 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나머지 20포는 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로 제공된다. 박종탁 본부장은 "농협 내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상호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우리농업지킴이광주본부, 사랑의 농산물 나눔

채소·장류 등 13가지 구성 꾸러미 400상자 광산구 전달

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는 8일 "최근 광산구청에서 '사랑의 우리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이어 상생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본부장, 박내춘 NH농협은행 본부장, 한재규 우리농업지킴이운동 광주본부



장, 이경진 NH농협은행 광산지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채소류, 장류 등 13가지 우리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400상자를 광산구청에 전달했다. /안태호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